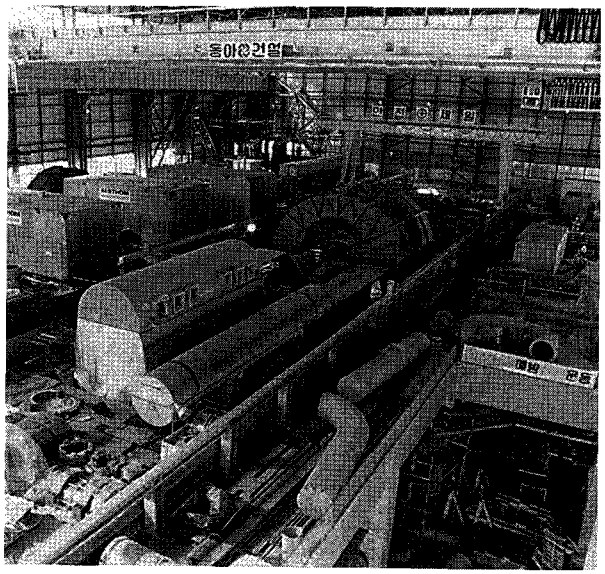
밝은 未來를 向해

=東亞建設産業(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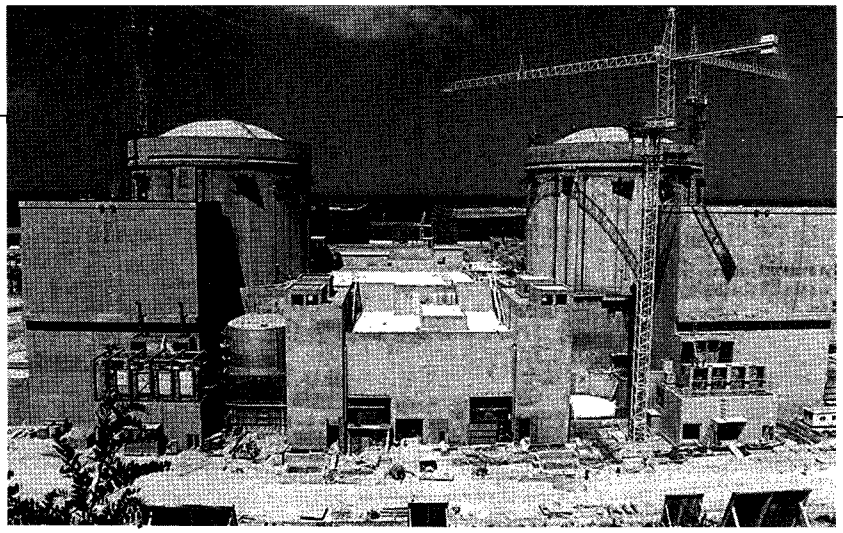
1980년대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1990년 새해는 한연대의 시작이면서 또 새로운 한세기를 여는 출발의 한해이다. 또한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이면서, 동시에 21세기의 문턱에선 연대이기도 하다.

지난 과거 1년을 되돌아보면 동아는 리비아대수로 2차 공사를 수주하여 세계건설수주사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한해였다. 이것은 동아인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1차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쾌거이고, 기업내외적으로 이미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동아'라는 명칭에 걸맞게 세계적인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고 가슴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격변과 충격의 연속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구권의 민주화를 위시하여 전세계는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사정도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의 와중에 와 있다.

이제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혼돈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전반적인 건설경기상황은 호황국면이 계속되리라 예상되며, 동아는 리비아대수로공사를 포함한 국내외적인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국내외공사를 유지해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부문에 있어서는 1990년도는 동아에게 상당히 의미가 부여된 한해라고 생각된다.



현재 동아가 시공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공사 관련사항으로는 주계약자로서 토건공사 및 기전공사를 1982년 3월 착공 이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각종 중요공정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드디어 1989년 9월에 울진원자력 2호기도 성공리에 준공을 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중요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2.3.2. 토건공사 계약체결(본공사 착공)
- 1982.3.5. 원자로건물 기초굴착 착수
- 1983.1.26. 원자로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
- 1985.6.1. 원자로 설치
- 1985.10.21. 기전공사 계약체결
- 1987.3.18. 1호기 상온수압시험 완료
- 1987.7.21. 1호기 고온기능시험 완료
- 1987.12.24. 1호기 핵연료장전 착수
- 1988.2.25. 1호기 초임계 도달
- 1988.4.7. 1호기 계통병입
- 1988.6.27. 2호기 격납건물 종합누설시험 완료
- 1988.9.10. 1호기 상업운전 개시
- 1988.9.17. 2호기 고온기능시험 완료
- 1989.1.5. 2호기 핵연료장전 착수
- 1989.4.14. 2호기 계통병입
- 1989.9.30. 2호기 상업운전 개시

이것은 총공정이 1, 2호기 모두 100%의 진도로서, 울진원자력 건설의 최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 월성원자력(중수로) 및 고리, 울진원자력(경수로) 발전소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양쪽 모두 축적된 기술경험, KNOW-HOW, 특수건설장비, 숙력된 고급기술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는 해외의 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업무수행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중이다.

또한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당사의 기술연구소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각종 기술 및 품질관리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고도의 품질보증 및 시공기술 함양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동아는 '90년대의 일등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기술과 경영의 국제화, 책임경영체제 확립, 의식개혁 및 화합기풍 조성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서 각 단위 조직별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사무자동화에도 정성을 기울이면서 계열사 직원 개개인이 첨단기재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과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동아는 국내외의 다양한 건설경험, 특히 원자력건설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후속기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